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차 재 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자에 의한 사회문제 연구는 미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심리학자들이 사회문제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되는데서 그리고 사회개혁의 의지의 표현으로 시작될 수 있다. 심리학자에 의한 사회문제 연구는 사회개혁에 일조를 하는 외에 심리학에게 새로운 개념이나 접근을 개발할 계기를 제공하고 사회현실의 문제와 심리학자의 관심을 밀착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는 실천연구(action research)나 응용사회심리학과는 구별되며, 이런 연구는 기술이나 처방 또는 양자를 모두 강조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1) 기지의 행동원리를 통한 사회현상의 분석, (2) 사회문제의 실험적 연구, 그리고 (3) 사회문제의 기술적 연구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심리학자에 의한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접근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문제(social issues)라는 말은 한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즘의 사회문제라고 하면 관료체계 안의 부정부패, 청소년 범죄, 사회의 민주화, 학원 내의 비리, 환경 오염, 통일, 그리고 최근에는 성희롱을 들 수 있다.

사회문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사회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것은 사회에 불안요소가 존재할 때라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1930년대

중반에 심리학자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이 1932년부터 시작된 경제공황을 겪게 되면서인데, 이로 인해 노동력의 4분의 1정도가 실직을 당하는 타격을 입었다. 국민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어려움이 20년대의 흥청망청 놀아나던 시기에 곧 뒤이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만큼 그런 상황변화는 학자들에게 보다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이고 이것이 일부 심리학자들에게서 개혁의지를 자극하고 그것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60년대에 미국이 겪은 일종의 “문화혁명”은 80년대에 응용사회심리학이

생겨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다.

사회가 불안요소나 모순을 안고 있어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만일 사회가 직접 전쟁에 휘말린다면 사회문제의 종류는 극히 제한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유일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고 전쟁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들만이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 불안정과 함께 사회문제가 부각되려면 어느 정도 사회의 안정과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한말기가 끝나 일본에 한국이 병합될 무렵에는 관리의 부패나 국민의 무지 등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는 커다란 흐름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주체인 한국인은 이런 사회문제를 다룰 여유가 없었다. 일제 식민세력에 여러 다른 모양으로 항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일제가 주도하는 현대적인 질서가 자리잡는 마당에서 한국인은 그런 한국 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다룰 자격을 잃어가고 있었다. 얼마 안 되어 한국인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식자나 사회과학자가 또는 일반 시민이 사회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불안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일부국민 사이에 주인의식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국민이 어느 정도 민주정치를 누려야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 일부 한국의 식자들은 한국인의 계몽에 애썼다. 국민이 우매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이 세계에 눈을 떠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국민의 우매나 무식이라는 사회문제가 있었다. 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당시에 국권의 회복이나 일본인에 의한 한국민의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가 있었으나 그것을 사회문제로 삼을 수는 없었다. 사회문제를 사회문제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한국 지식층은 오직 국민계몽이라는 형태로 사회문제를 말할 수 있었을 뿐이다. 국민계몽은 정복자인 일본인들에게도 의미있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국민에게 주권이 없을 때 사회문제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민주정치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회가 제시하는 여러 문제는 사회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로 될 뿐이다.

최근 성희롱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것은 이런 사실을 잘 증명해 준다. 한국 안에 여권의 신장이 있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권의 신장에 앞서 여자가 직장에 대거 등장했다는 사회적 사실이 있다. 그래서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것으로 시달리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또 여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져서 희생자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만큼 사회적인 힘이 강해지면서 그것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문제”는 그 사회의 문화, 권력집단, 그리고 사회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런 조건만을 보아도 사회문제의 연구가 토착적인 심리학을 길러내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다. 그밖에, 뒤에서 더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사회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며, 다급한 것이며, 한 사회의 건강에 관한 문제라는 특징을 지닌다. 다급한 문제들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고 다른 사회문제로 옮겨가는 일이 되풀이될 때 그 사회는 그만큼 병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의 역사 : 미국의 예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심리학계에서 사회문제가 어떻게 해서 연구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사회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또 어떤 문제를 다루었는지를 아는 것도 새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심리학 내의 움직임이 이미 1930년대에 구체화되어 1936년에는 미국심리학회 안에 “심리학적 사회문제연구모임(The Society for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SPSSI)”이 생겼다. 시기적으로 이것은 유럽에 나치 정권이 생기고(1933년) 유태인의 시민권과 기타 권리를 박탈하는 뉴렘버그법이 선포된지(1935) 1년 뒤이고 또 미국 안에는 갖가지 사회문제가 등장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공황(1929~1939)이었다. 경제공황은 심리학자들에게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지니는 통제력이 보잘것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사회경제적 제도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경제공황의 초기인 1932년에 미국 근로자의 4분의 1이 실직했다. 이것은 유럽에 파급되어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미국 안에서는 이로 인해 민생이 파탄에 빠지고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같은 해 여름에는 보너스 아미(Bonus Army)라고 알려진 1차대전 참전용사들 1만 2천명이 미국 수도에 집결해서 정부가 보상을 즉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불황은 20년대의 호황 뒤에 닥쳐온 것이기에 그만큼 충격도 더 컸다.

당시의 국제정세도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36년에 독일·이태리·일본의 주축국 동맹이 맺어지고, 또 같은 해에, 1931년에 설립된 스페인 공화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시작된 스페인 내전이 발발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사회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이런 사회적 불안정이란 배경 속에서였고 미 정부가 취한 뉴딜정책의 진보주의의 영향으로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졌던 일부 심리학자들(비단 사회심리학자만이 아닌)이 모여 모임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Hilgard, 1987, pp. 589-590).

미국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심리학자들의 모임인 SPSSI의 결성에 앞장섰던 사람은 Tolman 밑에서 동물학습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이어 생리심리학을 공부한 David Krech(1909~1977)였다.

그는 박사학위 직후 정치적으로는 약간 중도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Hilgard, 1987). 그는 이 모임의 초대간사가 되었다. 원래 이 모임의 시동이 걸린 것은 1935년으로 미국심리학회(APA)의 젊은 회원들이 조직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들이 이런 모임을 만든 이유는 실업중인 심리학자들을 위해서 학회가 그들의 전문지식을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일에 쓴다는 조건으로 정부가 주는 취로 구조금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6년에 들어와 확대 조직위원회는 당시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관심있는 심리학자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한 사회주의 주간지에 광고를 냈다. SPSSI는 1936년 9월에 정식으로 발족되었는데, 4개월 내에 333명의 회원을 확보했다(당시에 준회원을 합친 APA의 회원수는 1,800명 정도였다). 발족 약 2개월 후 APA에 정식 가입신청을 냈고, 승인은 다음 해에 나왔다(Miller, 1972).

다음 해에 이 모임은 미국심리학회로 편입되는데, 나중에 이 학회의 제 9분과회가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 1943년 무렵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심리학회(APA)에서 분과학회(a division)를 두는 편제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 현재 이 분과학회에는 369명의 영구회원과 2234명의 평회원, 총 2603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숫자는 이 학회가 회원의 크기에서 47개 분과학회 중 4위로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참고로 1970년 당시의 숫자는 영구회원이 299명, 평회원이 1483명, 총회원이 1782명이었다. 1970년 후 약 20년 사이에 약 8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이 분과회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 분과회의 역대 회장들의 이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학회에서는 해마다 Kurt Lewin 기념상을 시상하는데, 이것만 보아도 Lewin이 이 분과회에 끼친 공헌을 엿볼 수 있다. Lewin(1951, pp. 168-169)은 1944년에 이론심리학과 응용심리학 간의 관계에 대한 글을 쓴 바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G. Allport도 이

모임의 창립자의 한 사람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Myrdal, 1972). 이 둘 말고도 초창기에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모두 이 모임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모임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우선 사상적으로 약간 좌경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진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연구”를 한다는 것은 순수과학이란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잘못하면 실업자가 가득 찬 사회 안에서 면직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몸짓이었다.

APA 안에서 SPSSI가 유일한 사회실천모임인 것은 아니다(Miller, 1972). 1930년대에 SPSSI보다 1년 뒤늦게 출발한 the Psychologist League (PL)라는 모임도 있는데, SPSSI와 다른 점은 이것이 전국규모인데 반해서 PL은 뉴욕시 중심의 지역모임이고 주로 임상심리학자와 사회심리학자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SPSSI가 주로 연구를 통한 사회개혁과 정치경제적인 문제(파쇼주의 대두, 실직, 정부의 연구간섭등)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서 PL은 심리학자의 권익옹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또 한번 이와 비슷한 모임의 조직움직임이 있었다. 이 시기에 조직된 사회실천 모임으로는 Psychologists for Social Action(PSA) (1968년설립), Psychologists for a Democratic Society(PDS)(1969년 설립), the Association of Black Psychologists(ABP)(1968년 설립), 후자에 예속된 the Black Students' Psychological Association(BSPA), 그리고 the Association of Women Psychologists(AWP) (1969년에 출범)가 있다. 이들은 대개 권익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

심리학자들이 한 사회의 문제를 연구하려고 시도한 것은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사회문제의 연구의 간단한 역사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확실하게 들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문제의 연구는 응용

심리학적 연구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과거 Lewin(1951)은 이론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을 대비하면서 응용심리학이 반드시 이론심리학과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었고, 그는 당시 응용심리학 안에 사회문제 연구를 포괄해서 생각했으나, 응용심리학과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는 엄격히 말해서 서로 다르다. 응용심리학이 이미 알려진 심리학적 원리나 방법을 일상생활이나 사회운영의 문제에 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사회문제(social issues)”의 연구는 사회가 안고 있는 또는 사회가 드러내는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전자는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인간생활을 효율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사회문제” 자체와 씨름한다. 사회문제의 문제의식은 보다 거시적이다. 물론 사회문제를 심리학적 각도에서 연구할 때 이를 개인행동의 차원으로 분석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어디까지나 어떤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사회문제의 연구는 사회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사회참여적인 지향을 갖는다.

다루는 문제에도 차이가 있다. 응용심리학자가 다루는 문제는 거의 일상적인 것이다. 그것이 개인생활이든지 조직생활이든지 일상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심리학자가 다루는 사회문제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이다. 이런 사회문제는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해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의 안정이나 존속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또한 응용심리학이 다루는 문제는 심리학자가 주로 심리학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반해 사회문제는 학제적 연구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다. 심리학자는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틀과 접근방식이 그가 지닌 것의 전부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은 결핍되어 있기

쉽다. 이런 측면은 뒤에서 다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사회문제 연구에서 심리학자는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이나 문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간다.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 연구는 심리학에게는 그의 사회적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심리학 안에서도 심리학의 여러 전공분야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접근에는 심리학의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관여한다. 많은 경우 사회심리학자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지만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심리학분야 전공자들이 개입해야 된다. 사회문제 연구의 이런 측면은 사회문제의 연구가 심리학 안에서의 다른 분야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응용심리학적 연구와 사회문제 연구는 부분적으로 중첩되지만 서로 구별된다는 점이다.

심리학 문제의 두개의 초점 : 개인과 사회

심리학이 다룰 단위는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인간 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이나 사회이다. 대개의 경우 심리학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집단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심리학 조차도 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다. 한동안 미국에서는 40년대 후반 Lewin이 주도하던 “집단역학(group dynamics)”의 시절에는 집단을 단위로 한 적도 있었으나 곧 Festinger가 사회심리학을 실험 사회심리학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연구는 완전히 개인을 단위로 삼게 되었다. 사실 사회심리학은 이미 1924년에 나온 F. Allport의 사회심리학에서 생물학적 관점을 포용하면서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되었었다. 그래서 1926년에 Weiss(1926)는 심리학의 가정 중의 하나로 유기체에 관한 가정을 말하면서 “이 가정은 사회심리학의 기본단위(개체)를 유기체에서의 생활 및 행동과정

의 총체로서 정의한다. “This postulate defines the elementary unit in social psychology(the individual) as the totality of the life and behavior processes in the organism”(p. 205)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다루는 심리학은 반드시 개인의 “문제”만을 다룰 필요는 없는 것이다. 편이상 분석은 개인을 단위로 한다고 해도 집단이나 사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사회문제의 연구는 바로 이런 사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연구는 심리학으로서는 이제까지 소홀히 해 온 새로운 초점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사회심리학자 Tajfel(1981)도 일찌기 사회심리학에서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실험사회심리학은 그에 따르면 거의 전적으로 미시적이다. 왜냐하면 실사회장면을 조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사회심리학은 당대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예컨대, 세계나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사회심리학이 이론이나 연구 활동 안에 심리적 작용과 이 작용을 만들어 내며 이 작용에 의해 조성되는 대규모 사회과정이나 사건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포용할 수 있으며 또 포용해야 한다 (“social psychology can and must include in its theoretical and research preoccupations a direct concer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the large-scale social processes and events which shape this functioning and are shaped by it”, Tajfel, 1981, p. 7). Tajfel의 주장은 사회심리학의 관심의 범위 넓혀 대규모 사회과정을 그 안에 포용하자는 것이나, 이 글에서는 단지 “심리학” 안에 지역사회나 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초점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런 초점이 바로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라는 영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미 1939년에 Kurt Lewin(1951)은 사회심리

학이 발달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사회심리학이 “모든 크기의 대상이나 형태(objects or patterns)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연해서 “사회심리학은 3명의 아이의 놀이집단과 그들의 일시적인 다름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문제와 상황을 포괄해야 한다”(p. 132)라고 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Lewin은 “사회문제”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거나 그런 문제를 직접 다루는 일이 없었다. “실생활”의 문제를 끊임없이 말하면서 혁명이나 실업과 같은 사회현상을 직접 대상으로 분석한 일은 없었다.

그가 초점을 맞춘 문제들을 훑어보면 그의 문제의식을 알 수 있고 왜 그가 사회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가 다룬 문제는 좌절, 갈등, 포부수준, 포화, 퇴영, 대치, 집단결정, 집단분위기 등이다. 이들은 사회문제라는 큰 현상의 부분현상이며, “일상의 심리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문제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의 그런 태도는 그의 문제의식에도 드러난다. 그는 실생활의 문제를 모두 “응용심리학”의 문제로 보았다. “실생활장면(life situations)”에서의 실험은 응용심리학적 문제의 연구로 간주했다(Lewin, 1951, p. 165).

그는 섭식습관(eating habits)의 변용이란 문제를 상당히 역점을 두고 연구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섭식습관(음식선호)의 변화라는 일상의 문제 자체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관심은 곧 이런 습관의 변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집단의사결정 과정으로 옮겨간다. 전쟁수행을 위해서는 고기만 먹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의 내장도 먹도록 국민의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응용심리학적인 문제는 될지언정(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국민이 고기만 먹고 내장을 기피하는 것이 사회문제는 되지 못한다. 그는 진정으로 이론에 관심이 있었고 이론속에서도 구성개념(構成概念, construct)이라고 알려진 것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컸다. 앞에서 든 개념들은 모두 심리학적인 구성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구성개념에 대한 강한 흥미가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Lewin의 구성개념에 대한 집착으로 그는 혁명과 같은 사회사건을 보고도 그 현상을 전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그 현상 속에 들어 있는 어떤 일면, 그가 구성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리해서 이를 실험실로 들여와 연구하게 되었다. 그의 관심은 구성개념들을 연결하는 역동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계층의 평등을 위한 싸움은 그런 소수집단에 소속함을 자인하는 지도자가 나오거나 그런 소수집단에 자진 합류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경우에 후자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만 말하고 간단히 지나쳐 간다(Lewin, 1951, p. 164). 그는 프랑스 혁명에서 오늘의 용어로 지도자의 투신(投身, commitment)이라 부를 것의 중요성만을 주목하고 혁명이란 현상 자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현상을 “개념적 차원(conceptual dimension)”에서 분석하려는 그의 관심에서 나온 것이다(Lewin, 1951, p. 37). 개념적 차원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드는 속도(speed)와 가속(acceleration) 간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속도는 d/t 로 정의되는 것이고 가속은 d/t^2 로 정의되는 것이므로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둘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적인 구성개념에 적용하면, 구성개념들 간에는 개념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본다. 만일 개념차원에서 같다면, 두 개념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구별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개념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닌, 기저에 깔린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현형(phenotype)과 유전형(genotype)의 구별을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의미이다. 그래서 Lewin과의 사람들은 개인차나 기술(記述)적 연구를 기피했다(Festinger, 1980, p. 246).

Lewin이 사회현상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성개념에 대한 관심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는 현상의 기술(記述)보다도 현상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 집단역학은 집단에의 소속이나 그의 압력으로 개인이 변화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구성개념에의 집착도 그런 변화에 관한 관심으로 설명이 된다.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설명(說明)이 필요하고, 설명을 위해서는 구성개념이 필요해진다. 섭식습관의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이런 변화에 대한 그의 관심의 표현이다. Lewin이 혁명과 같은 사회현상 자체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그것이 주로 기술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어느 정도 왜 사회문제의 연구가 심리학자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자가 사회문제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1) 새로운 심리학적 개념, 원리, 접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 심리학적 지식이나 접근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3) 심리학이 사회현실에 접근하여 유용한 학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4) 심리학자가 사회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문제해결에 공헌하기 위해서이다. 이들 중 사회문제 연구를 가장 사회문제 연구답게 만드는 것은 마지막에 말한 관심이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들 중에는 심리학자 Skinner와 경제학자 Myrdal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재앙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인구증가, 대기 및 하천오염, 군비경쟁 등의 세계적인 문제가 사회과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장했다. 한 나라 안에는 또 다른 사회문제들이 무분별한 경제개발정책이나 과학기술의 적용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들의 해결은 사회과학자들의 몫이고 그의 큰 부분은 심리학자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이 다루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행동이기 때문이다” (Myrdal, 1972, p. 156). 다음에는 사회문제의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말해 보기로 한다.

사회문제 연구방법론

먼저 (1)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유지해야 할 시각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에 (2)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말하기로 한다.

문제해결로서의 사회문제

연구사회문제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말하려면 사회문제의 연구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자의 관여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려는 관심이 제일 차적인 것이다. 부차적으로 심리학자는 사회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심리학에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사회문제의 연구가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사회문제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문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것임이 자명해진다. 이것은 Polya가 말하는 문제해결의 단계의 첫단계인 “문제의 이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데, 심리학자가 할 일은 그 문제를 심리학적인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령 “부정부패”라는 문제를 다룬다면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분석을 다시 말해서 심리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구성(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부정부패는 한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예컨대, 학교에서의 부정부패와 금융계의 부정부패가 다르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부정부패는 다시 몇개의 관련된 다른 작은 규모의 부정부패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예컨대, 입시부정, 채단비리, 교사의 비리 등으로 말이다. 이들 작은 규모의 문제는 상호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상 분리할 수 있지만 종당은 다시 종합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연구의 목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의 연구라면 부정부패의 제거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부정부패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회나 정부

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다. 이 단계에서 사회문제 연구가 기술(description)을 위주로 할 것인지 또는 처방(prescription)을 위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딜렘마가 발생한다.

처방의 경우에는 특히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무슨 가치를 토대에 깔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중요하다. 그런 처방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어느 집단이나 부분에게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그 처방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또 어떤 면에서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처방이 한쪽에 이로우면 다른 쪽에는 반드시 손해가 간다는 시각이 아니라 당사자 양방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해결책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Deutsch(1977)는 갈등을 다룰 때 사람들은 갈등이 경쟁(한 쪽이 이득을 보고 다른 편은 손해를 보는)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갈등이 협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이든 처방이든 사회문제 연구는 심리학적으로 구성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사회과학자가 내리는 처방은 자연과학자가 내리는 처방만큼 정책수립자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선입견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과학자들 간에 이견이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정책수립자들에게서 존경을 받기는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연구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파악은 문제의 이해 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이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가할 수 있다. 요는 사회문제의 연구를 문제해결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볼 때에 문제의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가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면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일 것이다. 사회문제는 대부분 사람의 행동의 문제를 포함하는데, 사회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특히 한국에서 그렇다. 따라서 문제를 행동의 문제로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게 했다는 면에서 큰 공헌이 되는 것이다.

사회문제 연구의 목표로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개가 있을 수 있으나 몇개만을 들면, (1) 문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과 (2) 정책수립자가 지닌 생각이나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다음에 (3) 대책이나 해결책을 지시하는 자료를 얻어내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정책수립자가 가진 생각이 틀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현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결조건이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실천연구, 응용사회심리연구, 그리고 사회문제연구 사회문제 연구를 다루면서 "실천연구"(여기서는 action research를 그렇게 번역했음)에 대해 몇 마디의 말 없이 지나칠 수 없다. 실천연구란 말은 K. Lewin이 1945년 미국 MIT에 Research Center for Group Dynamics를 세우면서 쓰기 시작한 용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Lewin이 그 말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그 말을 자주 쓰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한 정의에 의하면 "실천연구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연구문제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Forsyth, 1983, p. 482), 이 말을 몇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 같다. 최근에 나온 심리학 백과사전에는 세 가지 다른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1)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사기(士氣)나 생산성과 같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2)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집단이나 조직의 어떤 행동과정의 수정에 이용되기 위해서 그 집단이나 조직의 성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그리고 (3) 집단이나 조직성원이 그 집단이나 조직의 발전이나 운영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사에 참여하는 연구가 그것이다 (Lippitt in Corsini, 1994). Lippitt의 의견은 실천연구란 말은 연구결과를 실천적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하는 연구인 마지막 두 가지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연구가 모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변용(변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음도 주목할만 하다. 사회실천(social action)이 실천연구의 개념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Festinger(1980)의 정의인데, 실천연구란 “사회문제지향 내지 사회실천지향적인 연구, 사회실천과 함께 하는 연구, 또는 사회실천의 일부로서 하는 연구”(p. 243) 라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천 연구는 연구결과를 집단이나 조직의 운영이나 활동수정에 이용하려는 개혁목적을 가진 연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연구방법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다만, 실천연구의 전략의 하나로 한 집단이나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의 성원이 연구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문제 연구에도 수용할 만한 특징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에서 초기에 행해진 실천연구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응용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심리학자가 그 주체의 요청에 응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사회문제의 연구에서는 심리학자들 스스로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용의 성격을 가진 연구가 되지는 않는다. 간혹 정부가 그런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회문제는 광범한 문제로서 정부의 구체적 정책과 연결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회문제의 연구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 사실 많은 경우 심리학자에 의한 사회문제 연구는 정부시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

실천연구와 조금 다르면서 사회문제 연구와도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응용사회심리연구를 들 수 있다. 응용사회심리학(applied social psychology)이란 말은 1980년대 초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Carroll, 1982; Weyant, 1986 참조). 미국이 60년대에 겪은 사회변동의 여파로 생긴 것이다. 당시 소장 사회심리학자들 사이에는 사회심리학의 연구문제가 사소하고 사회문제와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인식이 있었다. 두번째 이유는 사회심리학의 실험실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이 너무 인

위적이고 문화면에서 편파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Rodin, 1985). 사회심리학자들은 Lewin의 초기연구들을 새삼 되돌아 보게 되었다. 응용사회심리학적 관심의 대두로 생긴 것이 환경심리학, 보건(혹은 건강)심리학, 정치심리학, 법심리학 등이지만, 환경심리학과 보건심리학의 경우는 문제의 일부만이 사회심리학의 범위에 들어온다. 응용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회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들의 연구결과는 사회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ewin이 40년대에 실천연구에서 생각한 것은 이런 응용사회심리학적 연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론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을 자주 대치해서 논하곤 했다(예: Lewin, 1951, p. 168). 그는 집단역학(group dynamics)이 이론의 문제도 다루면서 “실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rational approach to practical social problems)도 가능케 한다”고 말하고 있다(ibid, p. 169).

그러나 응용사회심리학이 곧 사회문제 연구는 아니다. Rodin(1985)은 응용사회심리학의 문제로서 형무소 실험, 약물남용, 흑백인종별 학교분리, 과(過)활동이동, 소진현상(burnout)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 중 사회문제라고 할만한 것은 약물남용과 흑백인종별 학교분리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응용사회심리학이 다루는 문제의 일부만이 사회문제가 된다. 또한 사회문제는 대개 사회심리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만 심리학의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측면도 포함한다. 예컨대, 임상심리학이나 생리심리학과 같은 심리학의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동원이 사회문제연구에 필요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밖에, 사회문제는 시한적인 문제이다. 사회문제가 몇년 또는 몇십년 한 사회 안에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한적인 것이다. 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 한 문제가 사라지고 다른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다. 이에 비해 응용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일상적인 것이다. 응용사회심리학의 문제는 다급함이 없지만, 사회문제는 다급한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건강”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회문제 연구는

“한 사회가 앓고 있는 급성 및 만성질환”의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접근

심리학이 사회에의 초점을 갖게 되면, 이제까지 실험실에서 다루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이제까지 심리학자들이 보인 접근을 토대로 해서 사회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하나는 (1) 이미 알려진 행동원리를 통한 사회현상의 분석이고, 두번째는 (2) 사회문제의 실험연구이고, 그리고 세번째는 (3) 사회문제의 기술적 연구이다.

사회문제의 행동원리에 의한 분석

이 접근에서는 분석이란 말이 핵심이다. 이런 예를 Skinner(1971)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가 동물행동에서 밝혀낸 행동과 상황간의 기능적 관계를 이용해서 복잡한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노미”를 행동원리로서 설명한다. 이런 접근의 가장 큰 매력은 사회현상의 밑에 깔려 있는 소수의 기본행동현상의 일부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해석이 제대로 적용될 때는 복잡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간단한 원리로 분석하는 데서 오는 이해의 증진감 같은 것을 맛볼 수 있다. 한때 흰쥐나 비둘기의 연구결과를 무제한으로 인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터무니 없는 것이란 비판적 시각이 일어났고 그런 비판이 타당한 것은 사실이나, Skinner가 다룬 것 같은 기본적인 행동원리를 그런 비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심리학이 일구어낸 과학적 업적 중 가장 두드러지고 견고한 업적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경우 그런 비판은 잘못된 적용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행동원리에 의한 분석적 접근은 연구자가 먼저 사회현상에 대해서 그 특징을 잘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기본적인 행동원리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어느 쪽의 능력이 부족해도 만족할 만한 그리고 성공적 해석을 해낼 수가 없다. 이런 작업에서는 사회적

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수적인데, 심리학자는 흔히 그런 지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그 사회현상에 잘 맞는 행동원리가 이미 존재해야만 그리고 그런 원리를 연구자가 잘 알고 있어야만 성공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을 잘못 분석하여 엉뚱한 행동원리를 적용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사회문제의 실험적 분석

“실험적 분석”이란 말을 쓴 이유는 인과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연구만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필자(車, 1988)는 실험이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인과분석 목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현상확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심리실험의 원조라고 할 정신물리학적 실험(예 : 감각역의 결정)이 바로 현상확인적인 실험이다. 사회문제는 실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데, 사회문제의 실험연구는 다시 실험실 실험연구와 현장실험연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실험실 실험연구를 다루기로 한다.

사회심리학에서 실험실 실험연구라는 접근은 Lewin(1951)이 처음 보여준 것이다. 그의 실생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현상의 실험실로의 반입 (transportation of social phenomena into laboratory)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신은 “반입”이란 말을 직접 쓰지는 않고 “전위(轉位, trans-position)”란 말을 쓰고 있다. 그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회현상을 축소해서 실험실 안으로 끌어들여 연구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지 크기가 아니다. 그는 크기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그의 장이론과 관계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Lewin, 1951) : “만일 장이론적 접근이 옳다면, 이제까지 접근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여러 문제들을 실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엿보인다. 예컨대 만일 전체장의 형태가 크기보다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다면, 기본적인 사회배열을 적절한 집단크기로 그 배열들을 ‘전위’시키므로써 실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다(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전위'란 말로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변화를 가리킨다). 만일 실험자가 그런 전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는 '인공적'이고 '비실생활적'인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p. 164).

이런 접근은 사회현상의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실 Lewin은 구조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는 구조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조 자체를 분석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기로 한다. 어쨌든 그는 사회문제를 크기를 줄여서 실험실로 이끌어 들여 실험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는 이미 1939년에 사회심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룩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로 "실험사회심리학은 대형형태들을 기술측면에서 실험이 가능한 정도로 작은 틀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Lewin, 1951, p. 132)"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때는 그가 겨우 집단분위기의 실험을 끝냈을 무렵인데, "실험사회심리학"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이미 그때부터 사회문제를 축소해서 실험실 내로 끌어 들여 연구한다는 전략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가 굳이 실험을 강조했는지도 더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그는 바로 위의 인용한 말을 하기 전에 질문지나 면접법에 관해 언급하는데, 이런 방법에서 나온 반응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인식한 토대에서 이들 방법들을 앞으로 더 자주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는 질문지나 면접이 진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들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방법은 그에게 있어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실험만이 진정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에 크게 의존하는 연구는 일단 배제되었다고 여겨진다.

Lewin의 이런 실생활문제의 실험실반입 접근법은 이미 그의 독일시절의 실험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의 좌절에 관한 실험이나 요구수준(level of aspiration) 실험들이 모두 그런 축소지향적인 경향을 잘 드러내 보인다. 다만 이런 실험들은 집단에 관한 실험, 다시 말해서 사회심리실험이 아니었던 점이 다를 뿐이다. 요구수준 실험에서는 포부를 연구하면서 과제와 시간규모를 "축소"시켜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콩을 줍게 하고 다음 시행에서는 몇개를 주울 수 있을 것인지를 추정케 해서 현재 수행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행 간의 차이를 "포부"로 간주하여 실험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적 문제와 관련해서 그가 축소할 것을 생각한 것은 시간보다는 주로 "집단 크기(사람의 수)"였다.

Lewin은 사회심리학의 실험이 실험실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1943년에 "Psychology and group living"이란 글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안에서 "실생활 장면에서의 실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우리가 오늘날 현장실험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Lewin, 1951, pp. 164-165): "일부 사회문제는 실험적으로 만든 작은 실험실 집단들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또한 현존하는 '자연'집단 안에서 현실적 실험을 가능케 하는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는 큰 규모의 문제의 연구에 대해서는 작은 단위의 연구를 큰 단위로 "전위"시키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Lewin, 1951, p. 166). 이때 그가 말하는 연구는 현장실험연구이다.

실험연구는 그것이 실험실 연구이든 현장연구이든 인과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같은데, 이것은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오히려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회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의 여러 측면을 잘라내고 축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사회문제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더라도 하겠지만, 현상이 왜곡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왜곡을 최소화할 새로운 분석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문제의 기술적 연구

여기서 기술적이란 인과관계의 분석에 대한 의미에서의 기술(記述)이다. 환경심리학에서는 기술적 연구를 어떤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상관관계와 같은 함수적 관계의 분석도 제외되는, 그런 양식의 연구로 다뤄지고 있으나(예 : Fisher, Bell, & Baum, 1984) 여기서는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접근, 즉 현상확인적 실험(車, 1988)과 상관연구와 좁은 의미의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 (Selltiz, Jahoda, Deutsch, & Cook, 1961 참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심리학자만을 위한 사회문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학자 Myrdal (1972)의 말을 기억해둘 만하다: “현실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들은 하나 같이 복잡하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유일한 구분은 관련성이 높은 변인과 관련성이 별로 없는 변인간의 구분이다”(p. 158). 즉 사회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심리학자의 문제만을 떼어내어 연구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떼어낼 필요가 없다. 앞서 Myrdal이 말했던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사람의 행동의 문제, 즉 심리학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성질이 복잡할만큼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 다루는 변인이나 분석법을 사용할 용의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와 같이 복잡한 문제에는 자연과학적 형식을 빌려온 연구법이 꼭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은 인과분석을 위주로 하는 실험법에도 적용된다. 복잡한 현상을 연구하는 첫 단계는 그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문제 연구에서는 기술적 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될 공산이 크고, 많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게 된다.

기술적 접근의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기술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기술할 것인가인데, 그것은 심리학에서 하는 분석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단지 사회문제에는 단편적인 자극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반응을 기술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사회문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등장)하는데, 그 주역들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각자의 행동을 기술해야 하는 데, 이때 실험 장면과는 달리 각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자극이나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에서는 일방적인 인과관계란 무의미한 것이다.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하나의 행동 맥락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각자의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 연구와 구조의 문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사람들의 행동은 한 개인에 대해서 “구조”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심리학자로서의 우리는 구조라는 말을 주로 인지구조나 성격구조와 같은 개체내적인 맥락에서만 만나 왔지만 사회문제의 연구에서는 개체 간에 존재하는 구조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여러 사람들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구조도 있겠지만 물리적,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물리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 제도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구조도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행동의 구조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접근을 위해서 필자가 제외한 소위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車, 1991)이나 구조개념의 분석(車, 1993)이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전체의 모습을 가능한 유지케 하는 하나의 새로운 분석법이다. 행동의 구조 말고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도 사회문제의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체대로 된 심리학을 하려면 비심리학적 요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약물남용의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돈의 흐름의 분석없이 약물남용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Steinzor, 1972). 돈은 사람의 의식과 행동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비심리적 요인들의 하나이다. 필자는 여기서 Katona 등이 개척한 경제심리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문제의 연구에서는 앞으로 사회문제를 구조라는 각도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가 구조라는 개념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사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심리학을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심포지움을 “일상화된 국민 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주제 하에 열게 된 것은 다른 학문분야에서 주 최한 유사한 모임과 이 모임을 차별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행여 커다란 문제를 개인수준으로 환원해서 다루려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바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차재호(1988). 실험설계의 논리와 오류. 한국심리학회 편, 실험심리학연구법 총론(pp. 172-205). 서울 : 성원사.
- 차재호(1991).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전개. 한국심리학회 편, 1991년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pp. 455-461). 서울 : 편자.
- 차재호(1993). 심리적 장면에서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2(1), 60-80.
- Carroll, S. J. (1982). What is this thing called “applied social psychology?” *Contemporary Psychology*, 27, 772-773.
- Corsini, R. J. (Ed.) (1994).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 1. NY : Wiley.
- Deutsch, M. (1977). Recurrent themes in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33, 222-225.
- Evans, R. I. (1980). *The making of social psychology*. NY : Gardner Press.
- Festinger, L. (1980). Looking backward. In L. Festinger (Ed.), *Retrospections on social psychology*(pp. 236-254).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Fisher, J. D., Bell, P. A., & Baum, A. (1984). *Environmental psychology*. 2nd ed. NY : Holt, Rinehart, & Winston.
- Forsyth, D. R. (1983). *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Monterey, CA : Brooks/Cole.
- Hearst, E. (Ed.). *The first centu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ilgard, E. R. (1987). *Psychology in America : A historical survey*. San Diego : Harcourt, Brace, & Jovanovich.
- Kidder, L. H. (1981). *Selltiz, Wrightsman, & Cook's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4th ed. NY : Holt, Rinehart, & Winston.
-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 Selected theoretical paper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D. K. (1972). Social reform and organized psychology. *Journal of Social Issues*, 28, 217-231.
- Myrdal, G. (1972). How scientific are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Social Issues*, 28, 151-170.
- Rodin, J. (1985). The application of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805-882). NY : Random House.
- Selltiz, C., Jahoda, M., Deutsch, M., & S. W. Cook (1961).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Rev. one-volume ed. NY : Holt, Rinehart, & Winston.
- Skinner, B. F. (1971). *Beyond freedom and dig-*

- nity. NY: Knopf. [차재호 역(1982),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서울: 탐구당.]
- Steinzor, B. (1972). Comment on: "Chemical Comforts of Man," JSI, 27(3), 1971. *Journal of Social Issues*, **28**, 122-134.
- Tajfel, H. J.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ss, A. P. (1926). A set of postulates for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1**, 203-211.
- Weyant, J. M. (1986). *Applied social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Needs for and Methods of the Study of Social Issues

Jae-Ho Cha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sychologists are drawn to social issues when the latter directly affect them or when they become reform-minded regarding existing social problems. The study of social issues by psychology has the positive effects of nudging psychologists to make contributions to their field by way of new concepts and / or approaches and of bringing psychologists' interest close to the real problems of the society. The study of social issues are distinct from action research or applied social psychology in approach, and it can emphasize either the description or the prescription aspect or both. The study of social issues can use any of the following : (1) analysis of social phenomena by use of established behavior principles, (2) experimental 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3) description of social issues.